

'문화가 있는 날' 색다른 체험 호응

무주군, 곤충박물관 '민물고기와의 만남' · 최북미술관 '미술관 가는 날' 진행

무주군이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최북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펼치고 있어 무주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무주 문화·예술의 산실로 자리잡은 최북 미술관은 지난달 30일 최북미술관 세미나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가는 날'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예뻐어린이집과 안성초 저학년 학생 등 42명이 최북미술관을 찾아 미술체험과 최북 창작 '그리움을 그리다'를 감상하면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폈다.

이날 수준높은 작품과 직접 체험, 그리고 창작을 감상한 이들 무주의 꿈나무들은 "나무로 만드는 시계와 창극을 직접 체험하니 너무 기뻐다. 다음에도 꼭 다시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같은날 무주 대표적 관광지인 반디랜드 곤충 박물관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민물 고기의 만남' 행사를 펼쳤다.

이날 수족관 담당사육사들은 관람객들에게 무주 정경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의 민물고기에 대해 생태와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주 곤충박물관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민물고기 스티커를 이용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이 로봇 물고기를 이용해 운동기판인 지느러미 움직임을 통해



무주군이 반디랜드 곤충박물관과 최북미술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를 펼치고 있어 무주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치는지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을 곁들이자 흥미롭고 진지하게 지켜봤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주곤충박물관의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 취향에 맞는 성공적인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권태영 소장은 "무주곤충 박물관과 최북미술관은 곤충과 문화 분야의 색다른 체험으로 관람객들에게 신비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관람객들이 곤충박물관과 최북미술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권도원이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다.(사진은 태권도원 T1 경기장)

태권도원, '전북도 유니크베뉴' 선정

전북도, 마이스 행사 장소 발굴 위해 총 5곳 선정 발표

세계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이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다.

지난달 29일 전라북도는 차별화된 매력을 지닌 마이스 행사 장소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된 '2021 전라북도 유니크베뉴' 심사에서 태권도원(무주)과 팔복 예술공장(전주), 내장산 생태탐방원(정읍), 설랜드&건강장수연구소(순창), 상하농원(고창) 등 5곳을 선정 발표했다.

태권도원은 1천여 명 이상 동시 수용이 가능한 연수동과 동시통역시설을 갖춘 국제회의장, 규모별 회의 시설, 대규모 동시 식사가 가능한 식당동과 연회를 및 케이터링이 가능하고 피트니스센터 및 잔디 운동장 등 마이스 행사에 최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마이스 행사 중에도 태권도 체험과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 전담대와 모노레일 등 70만 평 청정 자연 속에서 태

권도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 참가 등이 가능한 특별한 장점이 있다.

전라북도 유니크베뉴에 선정된 태권도원 등 5개 장소는 선정 증서를 수여받고 국내 마이스 박람회 참가, 팸투어, 온라인 홍보 등을 전라북도로부터 지원받는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승환 이사장은 "태권도원을 찾은 마이스 행사 참가자들이 향후 전라북도과 무주군을 재방문 하는 등 우리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하겠다"며 "태권도 성지 태권도원에서 마이스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가 태권도를 알리고 활성화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3월부터 서면검토와 현지실사,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태권도원 등 5개소를 2021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로 선정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다양한 공연 펼쳐진다

11월까지 총 6회 무료 운영... 오늘 '익산아트 콜라보 1'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에서 시민들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문화가 있는 날'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인다.

시는 7월 1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이 있는 주 6회 동안 무료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7월 1일 저녁 7시 30분 송리문화예술회관 중공연장에서 국악과 대중음악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소리꾼 이다은과 보컬그룹 Q.O.S의 '익산아트 콜라보 1'이, 다음달 28일에는 '익산아트 콜라보 2'가 실시된다.

특히 '익산아트 콜라보'는 전통타악과 한국 무용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로 전통그룹 세모의 비나리, 세모놀이, 버꾸춤, 세모수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오는 8월 20일에 마련된 '포항광대 각설이'는 정타와 거리, 잔치집과 초상집 등을 무대 삼아 유감 결식하던 각설이패의 이야기를 담



보컬그룹 Q.O.S

소리꾼 이다은

은 무대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오는 9월 30일은 포스댄스컴퍼니의 '판타스틱 엘리스', 10월 29일은 가온스토리클래식의 '음악극 모차르트', 11월 25일에는 쇼코이더그룹 하모니이즈의 '에프터스능 힐링콘서트' 등이 준비돼 있다.

이 가운데 '판타스틱 엘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모티브로 한 댄스 뮤지컬로, 신비한 토끼의 초대에 이끌린 엘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돌아오며 시작된다.

'음악극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모차르트의 음악으로 구성된 음악극이며, 11월의 '에프터 스능 힐링 콘서트'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힐링의 시간으로 기획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좌석한 칸 띄어 앉기와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전당은 이번 6회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네이버를 통한 사전예약으로 관람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합회의 '지역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의 예매와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영화제작소, 단편영화 촬영장비 빌려줍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전주영화제작소는 영화·영상 산업 발전과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전주 단편영화 촬영 장비 지원' 사업의 하반기 작품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한다.

전북 지역 영화의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고 전북에서 활동하는 영화인들에게 전주영화제작소가 보유한 촬영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전주 영화·영상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가 전북 지역 영화에도 영향을 끼치며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 영화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주영화제작소는 최근 장비 이용객들의 요청과 지역에서는 입대가 불가능했던 무선 영상 송수신기, 무선 팔로 포커스, 17인치 모니터

등을 구매해 지역의 영화·영상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촬영장비 지원 대상도 전북에서 활동하는 영화인으로 해 지역 영화 제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화 기획 단계 및 촬영 준비 중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의 영화영상물로 작품 제작 완료 후 추가촬영으로 인한 지원은 불가능하다.

총 4편을 선정하며, 접수는 내달 5일부터 12일 오후 3시까지 e-메일로 1개 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영화 후반 제작 지원 사업 담당(063-282-14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